

—
Vol. 5
수영, 오늘을 달리다

도도 수영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



도도수영

CONTENTS

Vol. 5

수영, 오늘을 달리다



01

도시재생 주민대학 | 04

- 기억에 남는 강의와 그 이유
- 처음으로 도시재생 주민대학을 다녀왔습니다

02

수영구 무형문화재 | 06

-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 수영야류(野遊) 보유자 김성울을 만나다

03

아무튼 출근 | 10

- 병아리 도시재생 청년인턴
- 출근합니다, 뽕약뽕약

04

우리는 수영의 자산을 탐구 중 | 14

05

도도수영 NEWS | 16

06

도시재생현장 주민참여 | 18

- 4차산업혁명 & 감염병시대 도시재생현장 회복탄력성 심포지엄
- 우물에서 답을 찾다, 수영 우물제를 아시나요

기억에 남는 강의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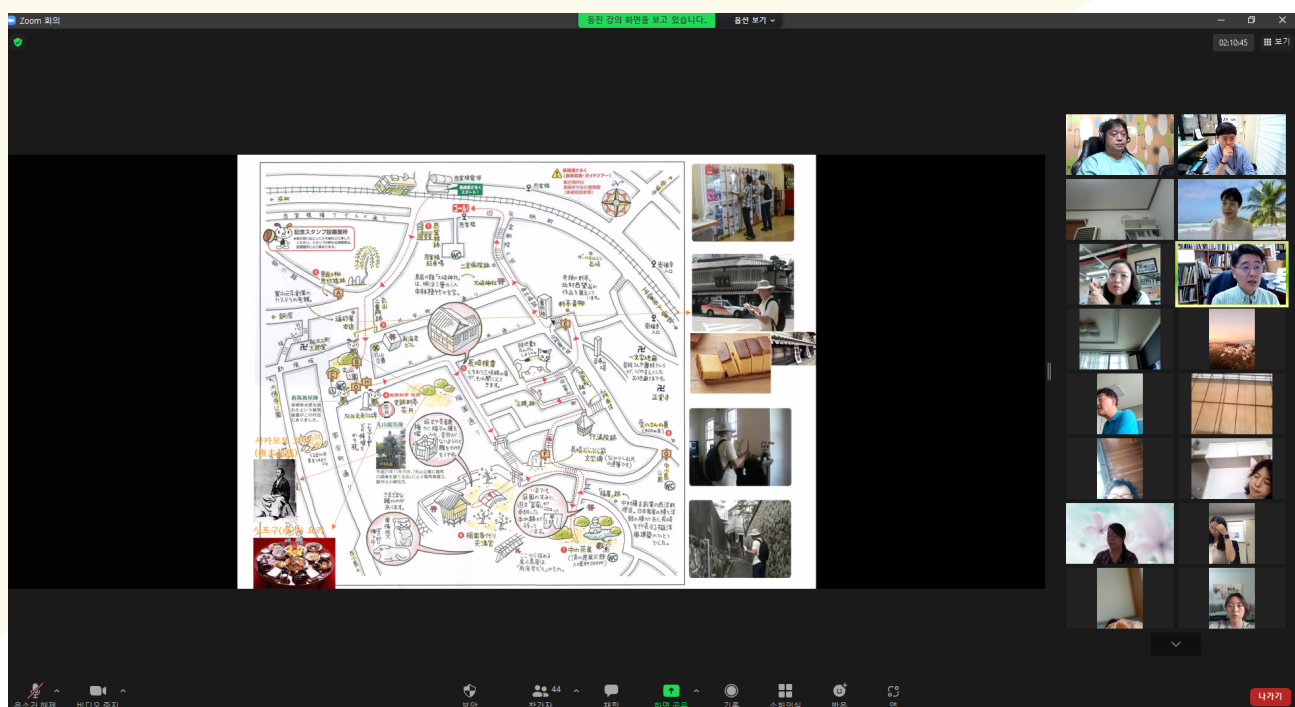
봄날 끝자락에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고 귀가하던 중 '도시재생 주민대학 수강생 모집' 현수막을 보고 신청하였다. 6회 강좌가 ZOOM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강좌가 유익했지만 그중에 4강 조재학 대표의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를 중심으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체험한 6가지 사례 중 서울 은평구 사업을 감독한 사실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 공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소통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주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행정과 유기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사는 강조하였다. 이번 도시재생 주민대학 참여는 주민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제안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수영구의 도시재생 주민대학은 관심 있는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삼술



처음으로 도시재생 주민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기대 반 궁금증 반으로 시작된 첫 강의는 이석환 교수님의 ‘도시재생의 철학과 가치’로 시작, 알기 쉽게 도시재생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강의는 도시재생에 대해 잘 모르던 저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성평등, 자본주의 시장,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처음 들어봤는데 잘 신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는 강사님들, 귀찮은 문의에도 친절하게 답변 해주신 담당자님,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줌을 이용해 편하게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 온라인 강의를 듣기는 하였지만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할 때 조금 부끄러웠지만, 강사님들과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강의가 또 있다면 신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다미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수영 문화지킴이셨던 고. 최한복 선생께서 지은 수영유사에 의하면 수영야류는 약 250년 전 현.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밤마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산신제(山神祭)와 함께 거행되어 그 해의 만사형통을 빌었다.

놀이 준비는 정초부터 시작하는데, 정초 3·4일경 야유계(野遊契)가 주동이 되어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밟기 공연을 하여 돈과 곡식을 거둬 경비를 확보하고, 한쪽에서는 놀이에 사용할 가면을 제작한다.

보름날 낮에는 분장을 한 수양반(首兩班)이 주축이 된 산신제가 베풀어지고, 이어 만물샘에서 우물고사와 무민사에서 최영장군 제를 지낸 뒤 달이 뜨면 본격적인 놀이에 들어간다.

놀이는 화려한 길놀이와 전체 네 마당의 가면극으로 구성된다. 길놀이는 작은 등(燈)을 든 아이들을 선두로 하여 놀이마당에서 약 1km 떨어진 수영강변에서 시작하여 놀이가 시작되는 광장을 향하여 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화려한 시가 행진을 벌이고 놀이판에 도착하면 악대를 선두로 한 원형의 거대한 농악회가 이루어진다.





농악대의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종이로 만든 탈을 쓴 관중들이 무대에 뛰어올라와 집단 춤판을 벌인다. 농악놀이가 서너 시간 계속되고 나서 흥이 가라

앉을 무렵, 수(첫째)양반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가면극이 시작된다.

- 1과장** 양반마당은 말뚝이(하인)가 양반의 이중인격을 폭로하면서 양반의 무능과 허세를 풍자한다.
- 2과장** 영노마당은 반인반수(半人半獸)인 영노가,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양반을 잡아 먹는다.
- 3과장** 할미·영감마당은 제대각시와 살림을 차린 영감과 본처인 할미가 싸우다가 영감의 발길에 채여 할미가 죽는다.
- 4과장** 사자춤마당에서는 거대한 사자와 범(담비)이 싸움을 벌이다 범이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수영야류의 전체적인 주제는 다른 지역들의 가면극과 같이 양반에 대한 반감, 일부처첩(一夫妻妾)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문제, 벽사진경(辟邪進慶: 나쁜 일을 물리치고 경사스런 일을 맞이함) 등을 다루었다.

수영야류는 1930년 까지는 우리 마을의 연중행사로 치뤄졌고 일제의 탄압으로 한때 중단되었으나, 8·15광복 후 복원되고 1971년 2월 24일 국가 무형문화재 제 43호로 지정되어 사단법인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를 중심으로 보존·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수영야류(野遊) 보유자 김성율을 만나다

수석이 가득 전시되어있는 전시장을 지나 건물 안쪽으로 향하면 수영야류의 탈과 공연사진, 수상기록들이 가득한 공간과 수영야류 보유자 김성율님이 계신다. 탈 없이도 수양반 다운 풍채에 살짝 긴장되었으나 '수영야류~!' 그 하나에 우리 동네 선한 이웃 아저씨가 된다. 수영야류는 어떤 놀이인지,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고, 수영야류에서의 역할, 탈의 의미 등 많은 말씀을 들었다.

수영야류는~! 말씀하시는 내내 풍채 좋은 어른의

Q 미소가 한가득하다

수영야류는 이름 그대로 야류입니다. 야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문으로 밤(夜)에 놀았다는 뜻, 들(野)에서 탈을 쓰고 마당놀이를 했다는 설, 양반들을 조롱하는 놀이라고 야유(冶遊)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야류(野遊)는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의 성격과 예술성을 지니며 전문 연극인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승, 토착화된 것이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Q 수영야류 입문은 성장 과정과 함께 했고 조부님의 영향이 컸다고

A 저희 집안이 23대째 살고있는 수영의 토박이 중의 토박이입니다. 조부님이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짓고 가을 타작을 끝낸 들판에 동네 청년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신밟기, 사물놀이를 동네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왔고, 35살 때 수영야류 전수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죠.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사, 이수자, 조교를 거쳐 2015년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수영야류 보유자는 몇 분이며 회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A 명예보유자 1명, 보유자는 저 포함 2명, 총 3명인데 공연을 못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을 명예보유자라고 지칭하죠. 수영야류는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국가 무형문화재입니다. 수영야류에 관여해서 공연하는 분들은 50명 정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영야류는 원래 남자들만 했었습니다. 각시, 할미 역할도 남자가 했지만 지금은 여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회원의 2/3가 여자일 정도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영야류가 전통과 달라졌지만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수영야류에서 “어떤 역할인지?” 물음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탈 상자를 꺼내 놓았다

A 수영야류 4과장중 1과장의 수양반(첫째, 우두머리, 50대 남자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 제작부터 악기, 춤 전부를 전수받았습니다. 수영야류에서 수양반이 유일하게 턱이 움직이는 탈을 쓰고, 사모관대를 한 양반다운 풍모로 좌중을 압도하는 춤사위, 특히 수양반은 말뚝이와 주고 받는 대담에서 어려운 대사가 많아서 남몰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수영야류는 공연이 끝나면 탈을 소각했습니다. 수영야류가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이었고, 똑똑한 말뚝이가 양반들을 놀리면서 실컷 욕했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면 누가 했는지 모르게 빨리 탈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탈을 불에 태워 없앴으로 “무탈하다”, “탈이 없어진다”, “죄의식에서도 피해간다”, “스트레스를 없앤다”, “지역주민의 안녕을 빌어준다” 등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쉬운 건 소각으로 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회탈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태우지 않아서 건본이 있으나 수영야류 탈들은 공연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써야 했는데 제작 시 박 모양에 따라 탈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1971년부터 건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형태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Q 해외초청공연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A 수영야류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는 대만 공연에서였는데, 앞 순서인 브라질팀의 화려하고 빠른 춤에 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수영야류는 한국 민족만의 전통과 의식이 깃든 춤사위가 돋보였다는 말을 듣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일, 프랑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훈이 담긴 공연을 할때마다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국위선양에 한몫을 하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수영야류 보유자로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A 수영야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지켜 나가야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현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이수자들의 수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수영야류를 가르쳐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보유자가 되는 기간도 길고 되기도 힘듭니다. 개인종목은 보유자를 지정하는 데에 반해, 단체종목은 보통 전수교육사가 됩니다. 제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단체종목에서 인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21.9.3.(금) 14:00~15:00
수석전시장

병아리 도시재생 청년인턴

2021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에 채용되어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된 청년인턴 박선영입니다. 저의 출근기를 소개합니다!

대학생 시절 느즈막히 일어나던 아침과는 달리, 지금은 출근을 위해 아침 7시에 기상한다. 통근 시간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여느 직장인처럼 빠르고 신속한 출근 준비를 마치고, 먼저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배웅한다. 다행히 센터까지의 통근거리가 가까워 출근 준비가 끝난 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통 한 시간 정도가 남는데, 나는 주로 이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는 어학공부를 하는 중이라 유튜브를 활용해 듣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다. 잠시간의 공부를



마치고 ‘아무튼 출근!’을 한다. 지금은 여름이라 출근은 주로 수영구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자 한다.

센터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상 정리와 텀블러에 음료 채우기이다. 시원한 음료와 함께 다이어리에 오늘 할 일을 한 번 점검하고,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가 끝난 뒤 개인적 업무를 시작한다. 청년인턴으로 센터에 파견되며 주로 맡은 업무는 홍보 및 디자인 업무이다.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 전 2주 동안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업무를 파악하였으나 업무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센터에 파견되고 난 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디자인 프로그램 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능숙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센터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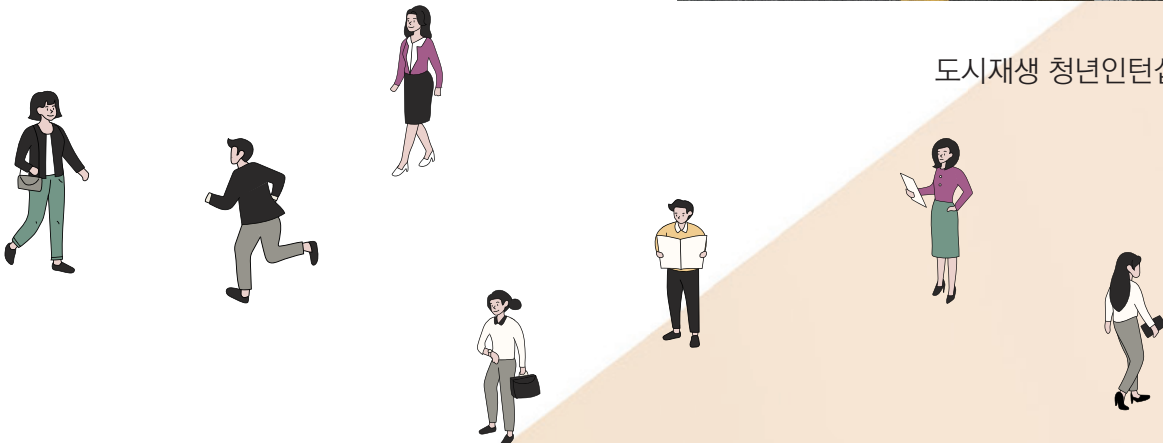


오전을 이렇게 보내고, 점심시간이 되면 같은 청년인턴인 채은 언니와 함께 수영 팔도시장 근처의 맛집을 찾아나선다. 칼국수, 순두부찌개, 샌드위치 등 여러 맛집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뿐만 아니라 맛있는 디저트 가게도 많아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오후 업무 동안 먹을 간식을 사들고 든든한 마음으로 센터로 향한다. 양치를 하는 동안 커피를 내리며 오후 업무를 준비한다. 오전에 했던 일을 이어서 하며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한다. 그렇게 오후 3시~4시 사이가 되면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셔본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다.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남은 업무를 마무리한다. 이후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책상을 정리하며 내일의 할 일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즐거운 퇴근 시간을 맞이한다. 그리고 '아무튼 퇴근!'

이상 저의 평범한 센터 출근기였습니다. 저는 올해 12월까지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니 수영구 도시재생이 궁금하시거나 저를 비롯한 청년인턴이 궁금하시다면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방문해주세요 :-)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박선영



출근합니다, 뽀약뽀약

2021 도시재생뉴딜의 청년인턴십으로 현재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채은입니다. 수영은 항상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치고 지나는 거점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망미골목과 비콘그라운드 그리고 광안리까지 제가 애정하는 곳들이죠. 우연찮은 기회로 이렇게 근무지로 배정이 되어 몰랐던 수영의 장소와 문화들을 하루하루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출근!' 하는 저의 일상으로 같이 가보시죠~

오전 7시 10분, 알람이 미처 울리기 전에 눈이 스윽하고 떠진답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는 인턴 근무를 하기 전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규칙적이고 일찍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매번 실패하곤 했어요. 하지만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된 지금, 이제는 주말에도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는 매번 하려고 하지만 아침에는 입맛이 영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잠도 깰 겸 커피 한 잔을 마셔요. 아,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센텀시티까지 우선 가야해요. 헉, 5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서 나가야겠어요! 버스에 타면 다 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다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나 봐요. 알 수 없는 위안과 동질감을 느껴요.

센텀시티에서 센터까지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한 번 갈아타입니다.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더 좋아요.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버스 바깥 풍경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더 좋아져요.





9시가 되기 조금 전, 드디어 센터에 도착했어요! 국장님과 코디님은 이미 출근해서 무언갈 하고 있어요. 저의 인턴친구 선영이도 이미 와있네요! 화장실 한 번, 탕비실 한 번,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과 공책들을 챙겨 이제 제 할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오전 업무가 끝나고 행복한 점심 시간입니다. 같은 인턴 선영이와 '오늘은 무얼 먹을까' 고민하는게 하나의 또 소소한 행복이에요. 저희의 최애 식당은 '니밥내밥'인데요, 그 중 저의 선택은 거의 항상 알밥이에요. 든든히 먹고 돌아와 오후 업무를 시작해봅니다. 잠이 쏟아질 때면 커피 한

잔도 마셔보고, 스트레칭도 하곤 해요. 그러다보면 신기하게 잠이 깨고 정신을 다시 차리게 돼요. 그렇게 퇴근시간이 되고 빠르게 버스를 타러 갑니다. 아무 생각없이 노래를 들으며 집으로 도착하면 그제서야 하루를 끝내고 온전히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잘만 흘러가요. 그렇게 창밖이 어두워지고, 또 다른 오늘을 위하여 침대에 들어서면 미련없이 베개에 제 머리를 맡겨 잠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인턴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저에겐 다 소중한 실무와 경험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센터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인턴 생활이 3달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어디쯤 와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저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끔은 신기하기도 하고, 이 시간을 아낌없이 더욱 가득 채워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의 시간들 많은 분들과 만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종종 지나가는 길에 센터에 들려주세요~ 언제나 저 박채은 인턴과 박선영 인턴이 맞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픈 청년인턴 박채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영의 자산을 탐구 중

2021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6팀의 현재 사업진행을 알려드립니다.

1. (주)푸조와곰솔

좌수영성 페이퍼토이 키트체험 모집

‘좌수영성 페이퍼토이 키트 체험’ 모집이 9월 13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총 172명이 신청하여 이 중 추천으로 선정된 50명에게 ‘좌수영성 페이퍼토이 7종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 중 완성작 사진 5점을 선정하여 ‘수영성 남문모형 만들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영성 마을 박물관 1층에 방문하셔서 도도수영 소식지를 보고 왔다고 말씀해주시면, 선착순으로 ‘좌수영성 페이퍼토이 종이접기 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블루밍청춘

언택트 웹소설X캘리그래피 콘텐츠 연구생 모집 중

웹 소설과 웹 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많은 예비 작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의 전통과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특색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블루밍청춘 블로그(https://blog.naver.com/your_kotts)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모집)

3. 아지매‘스

도도수영 골목길 기록 진행 중

도도수영 골목길과 가게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동네의 모습을 간직하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옛 기억을 되새기며 추억 속의 동네를 간직하고픈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4. 어반(U'Barn)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수영강 콘서트 준비 중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기능의 순기능 활성화와 코로나 19로 지쳐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위로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수영성무예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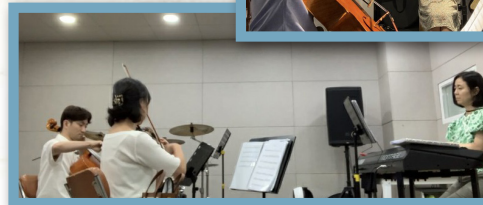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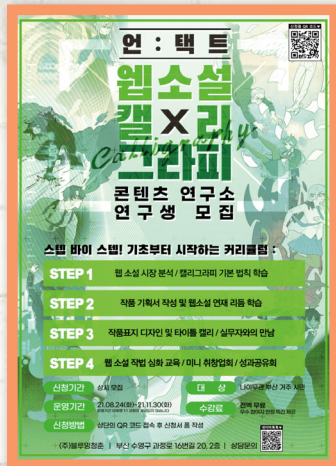
수군무예 전승교육 진행 중

현재 수영성 무예마을 카페에서 수군무예 전승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국궁 12명, 검술 10명, 태권 12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ZOOM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토)에 수영강 데크에서 수군무예 공연과 체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정변경 가능)

6. (주)더샤인팩토리

3D펜으로 꾸미는 수영성 만들기 체험 모집 중

수영성을 3D모델링하여 디오라마 형식으로 제작하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 30명을 추천하여 ‘수영성 3D메이커 키트 풀세트’를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더샤인팩토리 블로그(<https://blog.naver.com/theshinem>)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모집)



2021년 수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도수영’ NEWS



1. 좌수영성 일원 특화경관 조성

수영의 지역 특화길로 B-Con그라운드와 망미골목, 좌수영로, 팔도시장을 잇는 길을 만드는 좌수영성 일원 특화경관 조성사업이 시작됩니다. 25의용단 토우조형물 설치, 망미골목 생활문화 특화거리 조성, 좌수영성터 전통보존 및 성벽이미지 환경 디자인 개선 작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8월 9일(월) ~ 2022년 5월 28일(토)입니다.



2. 생활형 SOC 인프라 조성

수영동 429번지 일원 6필지에 주민의 기초생활 시설과 생활형 SOC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창작공간, 공공 키즈카페, 시니어도서관,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며,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어 2022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SOC(사회간접자본):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



3.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 조성

수영구 수영성로 26번길 일원에, 오래되어 방법에 취약할 수 있는 골목길 구간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활기찬 동네환경을 조성합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8월 4일(수) ~ 2022년 1월 30일(일)입니다. 골목길 정비, 이정표, 바닥 표기, 골목 중간 안내도, 길 안내 사인 설치 등을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정체성 및 역사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디자인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4. 상생협력플랫폼 조성

수영구 망미번영로 60번길 24, 28번지에 상생협력플랫폼을 조성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상가를 제공할 예정으로 1층은 홀 및 주차장, 2층은 상생협력상가와 공유 공간, 3층은 코워킹 스페이스, 4층은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및 세미나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1년 7월 ~ 2022년 3월입니다.



5.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스마트둘레 네트워크 유동인구 분석(25개소), 미세먼지 측정(14개소), 스마트 방역 서비스(14개소)의 운영이 2021년 9월 1일(수)부터 시작됩니다.



4차산업혁명 & 감염병시대 도시재생현장 회복탄력성

심포지엄


지난 8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반에 <도시재생 현장 회복탄력성 심포지엄>이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전국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5곳과 함께 줌(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은 유튜브 '수영구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나 댓글로 참여를 할 수 있어 소통의 장이 넓혀졌습니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및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재생현장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 감염병시대 도시재생의 주민참여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외 4곳(서울시 은천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주시 황오동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순천시 저전동 현장지원 센터)의 언택트 주민참여 사업 사례를 공유하였고, 언택트 사업 참여에 대한 각 센터 주민의 경험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도시재생현장 회복탄력성에 대한 생각 나누기를 끝으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시 은천동의 경우 코로나 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줌(ZOOM)을 활용한 내공 덕에 바로 공유를 시작 하였습니다. 시간이 다소 부족하여 준비한 내용을 모두 들을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언택트 사업에 참여한 소감과 환경문제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얼마나 보람차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 감염병시대

도시재생현장 회복탄력성 심포지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꾼 4차산업혁명과 감염병,
변화하는 대한민국 도시재생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1:30~4:00


유튜브 생중계
수영구 TV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심포지엄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전문가 발표 주제 : 감염병 시대 & 4차산업혁명시대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방향	김태영 박사(국립연구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언택트 주민참여사업 사례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산 권] 부산시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수 도 권] 서울시 강서구 은천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강 원 권] 강원도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경 상 권] 경북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호 남 권] 전남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언택트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경험 나누기	참여지역주민
도시재생현장 회복탄력성에 대한 생각 나누기	심포지엄 참여자 누구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정선군 활동가 주민분들의 힘찬 목소리로 경험 공유를 이어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담스러운 시기에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마을만의 문화관련 방송 프로젝트를 4회 동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코로나에 기죽지 않고 마을을 멋지게 만든다고 하는 정선군 주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주민역량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공유해주었습니다.

경주시 황오동은 줌(ZOOM)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작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언급하며 실시간 소통에서도 자연스러운 진행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참여 열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 저전동도 주민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줌(ZOOM)을 포함하여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 주민이 대표 활동가로 활동하는 소규모 모임 운영이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이란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모습에 큰 공감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부산시 수영구도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도수영’이라는 자체 잡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수영구 주민들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알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우편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시대의 도시재생에 새로운 방향성과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도시재생현장 회복탄력성 심포지엄의 전체 영상은 “수영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수영구TV>)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박선영, 박채은

우물에서 답을 찾다, 수영 우물제를 아시나요

상수도 시설이 있기 전 우물은 마을의 중심이었다. 우물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기에 물건을 주고받거나 서로의 소식과 안부를 나누는 곳으로, 삶의 철학이 듬뿍 담겨있는 희노애락과 함께하면서 ‘우물에서 답을 찾던 곳’이었다.

지금은 사라져 버리고 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물가에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란도란 들리는 정겨운 곳으로 다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물제를 올린다.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앞 수영 우물을 시작으로 병무청 주차장 뒤편의 망미동 우물, 광안 3동의 먼물샘 우물 등 총 5번에 걸쳐 진행된다. 8월 28일 오후 3시에 병무청 뒤편 동래고읍성(東來古邑城)터에 복원된 2기(基)의 우물 앞에서 진행된 우물제에 참여하였다.

이 우물은 현 병무청 본관 건물 아래에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 4기(基)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2기(基)를 현재의 병무청 주차장 뒤편으로 이전 복원(復原)한 것이다.





“땅~따다당~! 땅~ 따다당~! 코로나,
역병은 물러가고 ~ 칭 칭 칭~♪”
“땅~따다당~! 땅~ 따다당~! 만복은
이리로 (수영으로~!!!)~ 칭 칭 칭~♪”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란도란 들리는
정겨운 곳으로 다시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물제에 두 손을 모아 본다.

어릴 때 저 보았던 물지계를 지고 물을
길는 체험도 해보고 팔 시루떡, 시원한 수박도
나누며 옛 우물터를 연상케했다. 이곳이
바로 현대인들이 찾으려는 **오아시스**가 아닐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서 **아름다운** 정과사랑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 스며드는 이곳 우물

오아시스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의 우물이라는 점을 이제야 알게
되면서 그때 그 시절을 되새겨보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편집자의 글

노랑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이제 곧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지난여름, 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비대면으로 주민대학과 ‘도시재생현장 회복탄력성’ 심포지엄을 열어 4차산업혁명&감염성시대에 대처하는 방안을 찾고 서로를 지지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수영구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조성과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도도수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직은 속도도 느리고 뼈격대기도 하지만 우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취재에 기꺼이 응해주시고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며 편집에 힘써주신 마을소식 발굴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영구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전미경



발행처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편집인 전미경, 김연희, 최광훈, 윤라영, 장은서
 강미라, 박준성, 박선영, 박채은
 디자인 코코넛디자인스튜디오
 표지 전경연
 발행일 2021년 9월 15일
 인쇄 청송인쇄사
 주소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70번길 137
 전화 051-610-4093
 블로그 <https://blog.naver.com/ddsy4093>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jo180621>
 인스타그램 @suyeong_do_do



본 소식지는 수영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